

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보복공격...드론·미사일 공습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스라엘 전면 공격은 최초 중동 전면 확전 위기 빠져...'영공 폐쇄' 이스라엘 대응 주목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을 향해 무장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전개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지 12일만으로, 이번 주말 심야 공습은 이란의 첫 전면적인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다.

이란이 이날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됐다는 컨테이너 화물선을 나포한 데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대응 절차를 밟으면서 중동 상황은 전면 확전의 위기로 빠져들게 됐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현실화시 맞대응을 예고해온 상황에서 실제 이스라엘 대응 수위가 향후 확전 여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온주의자 정

권(이스라엘)의 점령지와 진지를 향해 수십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스라엘 영토 내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NBC 방송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드론 400-500여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이번 보복은 이슬람 율법의 키사스 원칙(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1979년 혁명으로 이란에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이스라엘을 향한 전면 공격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범죄 처벌을 위한 '진실의 약속 작전'으로 명명했다.

모하마드 레자 가라에시 아시타니 이란 국방장관은 "이란 공격을 위해 이스라엘 영토나 영공을 개방할 수 있는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해 버리고 있던 보복공격을 감행해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이란 영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로이터=연합뉴스

나라라면 우리의 단호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이끄는 이슬람권 '저항의 축' 무장세력도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했다. 이스라엘 접경 레바논 남부가 근거지

인 헤즈볼라는 이란 공습에 맞춰 골란 고원에 배치된 이스라엘 방공 진지에 수십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도 긴박하게 움직이며 대응에 들어갔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이스

라엘 방어 지원에 나섰다.

이스라엘 항공당국은 이번 공습 대응으로 영공을 폐쇄했다.

인접국 이라크와 시리아, 요르단 등 상공에서는 미국과 영국 전투기가 이란

이 쏜 드론 일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과 이라크는 영공을 폐쇄했고, 이집트도 방공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을 시작했다"고 확인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컨테이너 화물선을 나포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텔라웨어 별장에서 백악관으로 급거 복귀했다.

이란이 예고한대로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피격에 따른 보복을 감행한 것은, 후폭풍 등을 감안해 그 수위를 미세 조정할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란의 이번 공격이 민간 혹은 종교 시설이 아닌 정부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도 공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스라엘 군 소식통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군사시설만 겨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권자만 10억명...인도 총선 어떻게 치러지나

6주 걸쳐 7단계 실시

14억명이 넘는 인구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가 오는 19일 연방하원을 뽑는 총선을 시작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총선이 하루 동안 치러지는 것과 달리 인도 총선은 6주에 걸쳐 7단계로 28개 주와 8개 연방직할지에서 실시된다.

이번 총선 기간은 4일로 독립 후 첫 총선인 1951-1952년 선거기간(약 4개월)을 제외하고는 역대 총선 중 가장 길다.

등록 유권자 약 9억7천만명은 105만여개 전국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EVM)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한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임기 5년의 연방하원 543명을 선출한다.

총선은 현 연방하원이 오는 6월16일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실시된다.

총선 개시일인 19일은 1단계로 전국 102개 지역구에서 투표가 이뤄진다.

이어 4월26일, 5월7일, 5월13일, 5월20일, 5월25일, 6월1일 전국 지역구에서



총선 준비하는 인도 선관위 직원들.

순차적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개표는 6월4일 하루 동안 이뤄지고 결과도 당일 발표된다.

이때 차기 총리 윤곽도 드러난다.

의원내각제인 인도에서는 한 정당이 나 정치연합이 총선에서 연방하원 과반의석(272석)을 차지하면 정부를 구성해 이끌어간다.

어느 정당이냐 정치연합도 과반의석

을 얻지 못하면 최다의석 정당이나 정치연합이 다른 정치세력과 연대해 정부를 꾸린다.

각 정당은 총선에서 다른 선거에 서건 정당 상징(그림)을 사용한다.

초장기 문자해독률이 낮아 문맹인 유권자들이 정당 상징만 보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당국이 배려한 게 전통이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저장소 사면 붕괴 대비 공사

저장수조 주변 사면 굴착 공사 향후 10년간 진행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핵연료 저장시설 주변 사면의 붕괴에 대비해 대규모 굴착 공사를 할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 요구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주변에 있는 높이 24m 사면의 굴착 공사를 향후 10년간 진행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공사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 공사에 방해가 되는 철타 등을 철거하고 사면의 굴착 공사를 할 계획이다.

파내는 토사 총량은 약 10만㎡로 예상된다.

원자력규제위는 부지 내 사면이 "큰 지진이 아니더라도 또는 전혀 지진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위는 사면 붕괴로 토사가 저장

수조에 흘러 들어가면 핵연료를 냉각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핵연료가 녹을 수 있다고 봤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현재 사용후핵연료와 미사용 핵연료 5천197다발이 물로 채워진 저장수조에서 열과 방사선량이 낮아지도록 저장 보관돼 있다.

도쿄전력은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영향으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40년이 되는 2011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핵연료 반출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괴짜 기질' 아르헨 대통령, X로 코미디언 연인과 결별 발표

미국을 방문 중인 허비에르 밀레이(53)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여자친구와의 결별 사실을 공개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파타미 플로레스와의 관계를 끝내고 (서로) 우정에 기반한 유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서로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원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썼다.

그는 "제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파타미는 압도적인 직업적 성공 덕분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함께 일하는 수많은 제안을 받았다"며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복잡한 집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해 8월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한 뒤 플로레스와 공개 연애를 발표했 바 있다.

지난해 12월10일 대통령 취임식 당일 밀레이는 플로레스와 함께 콜론 극장을 찾았고, 지난 2월 플로레스의 생일엔 마르데플라타에서 열린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 청중 앞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